

기 업 과 문 화 예 술 의 아 름 다 은 동 행

Gyeongnam mecenat

2010.06 VOL.007



김완호 김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경남메세나거나 함께합니다

기업가치 향상의 뉴 파트너
경남메세나협의회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면 ▶▶▶

기업이 행복해집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문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향상됩니다.

직원이 행복해집니다.

문화예술의 힘으로 창의적인 기업 문화가 조성되고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고객이 행복해집니다.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올라갑니다.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 하시면

-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문화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세미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창조경영, 문화경영 지원
- 메세나 매거진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회비나 문화예술단체 결연 지원금은 물론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도 지정기부금 처리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 인 :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
- 개 인 : 연간 소득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

가입방법	▶ 입회신청서 1부 제출
연 회 비	▶ 기 업 : 연 2백만원 이상
	▶ 개 인 및 문화예술단체 : 연 1백만원 이상

CONTENTS

휴(休)	04
예술과 삶	06
결연식 스케치	10
신규결연팀 소개	12
Hi Arts, High Five	16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19
줌 인 메세나	30
예술과 여행	34
예술의 희망이야기	38
문화와 나	40
우리회사 메세나	42
메세나사업소개	44
문화파발마	46
독자투고	47



경남메세나 통권007호

| 발행인_문동성 | 발행일_2010. 6. 15.
| 발행처_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경남메세나협의회
| www.gnmecenat.or.kr | Tel_055-285-5611 | Fax_055-285-5610
| 편집인_손갑동 | 사진_강승한
| 기획·편집_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_055-296-4995
| 인쇄_(주)화성 Tel_055-295-4995



■ 이우걸

197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조집 『지금은 누군가 와서』, 『빈 배에 앉아』, 『저녁 이미지』, 『맹인』 등 다수. 평론집 『현대시조의 쟁점』, 『우수의 지평』, 『젊은 시조문학 개성읽기』, 경상남도문화상, 정운시조문학상, 중앙시조대상, 이호우 시조문학상, 가람시조문학상, 한국문학상 수상. 현재 『서정과현실』 발행인, 경남문학관 관장.

이우걸, 리본

이우걸

배우지 않은 악보를 새들이 읽고 있다.

리본을 단 햇살들은 바람에 하늘거리고

어젯밤 꾸었던 꿈을 소녀들은 헤고 있다.

서둘러 견제 했던 우리 생의 기호들

오늘은 풍선처럼 가슴 설레어서

꾸었던 일상을 풀고

꿈이 날아온다.

청마 유치환,

행복은 이렇게 오더나라 글_ 박서영

인간이 한량없이 많고 아까운 것으로만 여겨집은 어찌란 나는 어쩔 수 없는
 진정한 시인이 못 된 때문인지 모르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시인... 을 보다
 소중히 다루었으므로
 본스러울 리는 언
 오직 진
 비굴하게
 길을 취하
 나아가
 이 민족이
 현대 대신
 용기와 지성을



靑馬, 유치환의 시작과 마지막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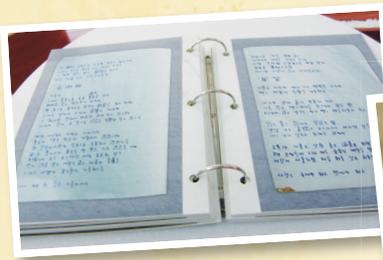
청마 유치환의 흔적을 쓰다듬기 위해서는 거제도과 통영을 함께 둘러 봐야 한다. 거제도과 통영은 이웃이면서 시인, 청마 유치환이라는 거대한 산을 등에 지고 있기 때문이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제의 길가엔 노란 유채꽃과 수선화와 붉은 자운영이 한꺼번에 피어 봄과 여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자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유치환 시인의 첫울음이 시작되었고, 그의 마지막 자리인 묘소가 있는 거제를 먼저 찾아갔다. 유치환 시인은 외가가 있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에서 출생하여, 통영의 태평동으로 옮겨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가는 거제과 통영 두 군데에 복원되어 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거제든, 통영이든 시인의 숨결이 묻어있기는 마찬가지다.

거제 청마 기념관은 자연의 품에 넉넉하게 안겨 있었다. 기념관 뒤편으로 나있는 산길을 오르면 청마의 묘소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다. 그는 평소 어머니의 묘소 옆에 묻히고 싶다고 했었다. 그가 원하던 대로 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은 시인은 하루 종일 햇빛과 바람과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을 것이다.

청마 유치환은 1967년 2월 13일 밤 문인협회 이사회에 참석 후 귀가 도중 부산 좌천동 앞길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59세의 생을 마감했다. 처음 묘지는 부산 하단동 승학산 기슭에 안장되었다가 양산시 백운공원 묘원으로 이장, 그 후 1997년 4월 3일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지전당골 선산으로 청마선생의 묘를 이장함으로써 선생께서 생전에 사모비에 적힌 소원대로 어머니의 곁에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시인의 묘소엔 보랏빛 제비꽃들이 피어 있었다. 빗방울이 조금씩 강해졌고 아무도 없는 산 속이 불현듯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청마 앞에서 가만히 머리를 숙였다. 하늘의 먹구름이 내 어깨를 잡을 듯 낮게 흘러가고 날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졌다. 한바탕 비가 내릴 기세였다. 청마가 걸어온 굴곡진 역사의 흔적 위로 거칠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행복

통영의 청마 문학관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단체관광객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통영은 문화예술의 메카다. 얼마 전 타계한 박경리 소설가와 김춘수 시인, 김상옥 시조시인을 비롯하여 윤이상, 전혁립 등 거장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문화해설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진지하게 메모하는 젊은이들이 물처럼 빠져나간 후 문학관은 잠시 적막에 휩싸였다. 문학관에서 통영의 소박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정박해 있는 많은 배들을 보며 통영의 바다는 단순한 이미지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생업의 바다, 생활의 바다라는 생각을 했다. 유치환에게 통영은 상처가 시작된 곳이면서 또한 상처의 회복을 꾀한 곳이기도 하다. 통영에서 만난 시조시인 이영도와와의 애뜻한 이야기는 우리의 감수성을 회복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청마는 이영도 시인에게 수 천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청마거리에는 그가 편지를 썼던 '이문당' 서점과 편지를 부쳤던 우체국이 있다. 유치환의 시 '행복'에 나오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이다. 나는 詩 속의 우체국을 생각하며 도시의 소음과 매연을 견디며 골목을 걸었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정도로 좁은 골목은 차로 뒤엉켜 있었다. 문학 속의 풍경과 분위기에 취해 이영도 시인이 운영했던 수예점 자리도 찾아보고, '이문당' 2층 창가와 시인이 자주 둘러 커피를 마셨다는 다방 자리도 찾아보았다. 문학의 배경지 복원과 현대의 삶은 천 리 만 리 길처럼 멀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황히 내다되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숨은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죽한 얼굴로 와서
 종종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형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뜻한 연분도
 한 방울 연관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 행복 全文

새로 지은 현대식 콘크리트 우체국 건물이 청마 유치환 시인의 그 우체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청마 거리를 걸으며 ‘행복’을 읊조려보고, 청마와 이영도 시인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청마의 유고수필집으로 이영도 시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중 200통을 추려 모은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연서’처럼 남아있는 “행복”은 청마의 수많은 대표작 중 하나이다. 청마 유치환은 참으로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1940년대 “깃발” “생명의 서” “바위”와 같은 작품들에서 주로 삶의 허무와 그 극복의 의지를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위”에서 세속적인 고뇌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남성적인 목소리로 담고 있다. 그래서 유치환은 남성적 어조의 시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행복”은 성격이 좀 다르다. 시대 상황과 개인 상황이 바뀌면 시인의 시 세계도 함께 변모하는 것일까. 유치환은 해방 후 통영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영도 시인에게 1967년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새삼 ‘편지’가 주는 애뜻함이 그리워진다. 유치환의 “행복”은 사랑의 이루어짐과 상관없이 편지를 보내고 그 기다림 속에서 행복해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8남매의 차남으로 태어나 평소 내성적이고 말이 없던 유치환에게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좋은 매개체였을 것이다. 청마는 학교종이 울리더라도 뛰어가는 법이 없고 조용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의 내성적 성격은 중학생이 되어 더욱 심해졌다. 일본인 친구를 사귀지 않고 그는 혼자 책을 읽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듬해 관동대지진을 만났다. 일본인들에게 아무 죄도 없는 한국인들이 학살되는 것을 보며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소녀가 훗날 그의 아내가 된 권재순 여사이다. 그리고 보면 그의 아내와의 인연도 이영도 시인과의 인연도 모두 편지로 시작된 것이었다.

생명과 애수

유치환은 통영보통학교, 일본 토요야마 중학교, 동래고등보통학교,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일본, 통영, 평양, 부산, 만주를 돌아다니며 살았고 사진관 운영, 백화점 근무, 농장 관리인, 정미소 경영, 교직생활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지만 내성적이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생활을 즐겼다. 연희전문에 입학하였으나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유치환의 보모로 있던 권재순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그 시절 드문 신식결혼이었다. 이 결혼식 때 신랑신부 앞에서 꽃바구니를 들고 있던 어린아이 중의 한 명이 바로 김춘수 시인이라고 한다. 1995년 『시와반시』 가을호 ‘나의 예술인 교우록’이라는 글에서 김춘수 시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호주선교사가 경영하는 유치원에 다녔다. 거기의 보모 중 한 분이 나중에 청마의 부인이 된 권여사다. 권여사는 음성이 고왔다. 그녀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한참까지 여운이 귀에 남는다. 그 권여사가 시집갈 때 나는 뽀뽀해서 들러리를 섰다. 종이 꽃이 든 꽃바구니를 들고 신랑신부의 앞으로 가며 뒤따라오는 그들의 발끝에 꽃을 뿌렸다. 지금도 생각이 난다. 그 때의 신랑이 청마다. 그를 나는 그 전에도 본 일이 있다. 유치원으로 권여사를 만나러 오는 길췌에서도 보았고 수업시간에 창 밖을 어슬렁거리는 그의 그림자를 보기도 했다. 그는 그 때 말쑥한 청년 신사였다. 해방의 그 해 우리가 재회했을 때 청마는 물론 나를 몰라봤다. 부인 권여사가 곁에서 나를 소개해주어 한바탕 웃은 일이 있다. 그 때의 그 조무래기가 언제 어른이 돼서 이젠 당신과 친구가 됐네! 하며 나를 무안하게 했다”

김춘수 시인의 회고에 따르면 청마 유치환은 술자리에서도 말이 없고 누가 뭔가를 물어오면 짤막한 대답만을 할 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청마는 일제 때의 자신의 소심한 처신을 뉘우치기도 했다고 한다. 권재순과 결혼 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청마는 일본의 아나키스트들과 정지용의 시에 깊은 영향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1931년 24세 때 『문에 월간』 2호를 통해 문단에 데뷔한 후 청마는 30,40년대 아나키즘 사상을 접했고 실제 일제라는 강권에 대해 지식인으로 고민했다. 아무 곳에도 구속받지 않으려는 아나키즘 사상은 청마의 평소 행동에도 잘 나타나 있었다. “시를 쓰는 행위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짓거리가 아니다”라고 한 청마는 언제나 자유와 사랑을 중요시한 시인이었다.

청마 유치환의 시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편에서부터 원시성과 야성적 생명공간이 꿈꾸는 특성을 갖고 있다. 청마의 생명 의지는 애수라는 감정을 함께 불러일으킨다. 당시 일

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되는 독점 자본주의 포악성에 저항하는 면역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생명과의 한 사람으로 동인지 『생리』를 간행했고 1939년 첫 시집 『청마시초』를 펴낸 이래 14권의 시집과 수많은 시를 남겼다. 청마 유치환의 작품은 허무를 극복하려는 남성적, 의지적인 경향으로 절대적인 경지를 갈구했다는 문단의 평을 받는다.

비 그친 통영의 밤은 별빛과 달빛 그리고 가로등불빛이 묘하게 뒤섞여있다. 빛 속에서 어른거리는 추억을 잡을 듯이 청마 유치환의 생애를 더듬어보았다. 청마의 마지막 일기를 읽으며 올해 내린 4월 폭설을 생각해본다. 우체국 앞에 앉아 있다가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듯 그렇게 한 시절이 갔고, 한국 문단의 거목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문재에는 자주 눈이 내리는 모양인데, 여는 새해 들어도 양은 조금 흐렸다가 벅거리는 날이 있을 뿐 맑은 날씨가 계속이다. 그래 이상건조라고 산불들을 조심하라고 추후소의 경고까지 내주고 있다. 이 겨울엔 내 건강이 아무래도 좋지 못해 조금만 등이 시려도 느끼면 해면 코가 막히면 하늘에도 북쪽의 먼 산에 백설(白雪)이 얹힌 원경(遠景)이 그리워진다.

- 청마의 마지막 일기 (1967년 1월 12일)

* 청마 유치환 시인에 대한 자료는 청마 기념관 및 청마 문학관의 자료를 참고 하였으며, 일부 사진사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글쓴이 박서영

박서영 시인은 경남 고성에서 출생하여

19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였고,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부부 창작지원금을 받았다.

시집으로 『붉은 태양이 거미를 문다』가 있다.



mecenat

조금 이른 감이 있는 6월의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는 창원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는 경남의 메세나 기업대표들과 문화예술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결연식 사회를 맡은 KNN 김민희 MC의 진행으로 상반기 결연식 행사의 막이 올랐다. 2010년 상반기를 통해 결연을 약속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대표들 외 에도 축하를 위해 참석한 경남의 각계 인사들의 행복한 표정이 식장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았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기업과 결연을 맺게된 문화예술단체 대표들의 기대감이 행사장의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었다.

본격적인 결연식에 앞서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특별강연이 시작되었다. '문화경영을 통한 감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해 준 홍승찬 교수는 메세나의 진정한 의미와 다양한 메세나 사례를 통해 문화경영을 시도하는

문화예술 리더들의 모습을 통하여 감성 리더십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상반기에만 26개 팀이 결연하는 성과 나타나

강연에 이어 인사말에서 문동성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은 “지난 3년간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사업을 활발히 펼쳐온 결과 2008년에는 29개 팀, 2009년에는 45개 팀의 결연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6개 팀이 결연함으로써 우리지역에 메세나가 점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문화예술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메세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라며 기업들의 메세나

2010 상반기 경남메세나 결연식



10년 상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일 시: 2010. 6. 10 (목) 17:00 | 장 소: 창원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룸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하는 2010 상반기 경남메세나 결연식이 지난 6월 10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강연과 사업추진현황 보고 및 결연식이 성황리에 열렸고 축하공연이 마련되어 결연식 자리를 더욱 활기차게 해주었다. 아름다운 동행의 출발점으로서 기업과 예술단체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경남의 메세나 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들어 낸 뜻깊은 시간이었다.

활동을 독려했다. 이어서 배종대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경남메세나협의회가 3년 만에 165개 회원사로 늘어나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문화예술 수준을 크게 높여주신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바탕으로 기업은 문화예술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문화예술은 기업을 통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참가자들을 축하했다.

이어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결연식이 시작되었다. 경남은행과 STX조선해양(주) 그리고 (주)신택이 2개 이상 복수 예술단체와 결연을 하였고, 그 외에도 경남스틸(주), 경남자동차판매(주), (주)경한코리아 등 총 26개 팀이 결연 약정서에 사인함으로써 아름다운 동행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각 결연팀마다 약정서

교환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모두가 함께 한 단체기념촬영으로 결연식은 마무리되었다.

결연식이 끝나고 창원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정열적인 붉은 원피스 차림의 여성중창단의 ‘꽃밭에서’와 ‘내가 만일’을 시작으로 남성솔로, 혼성 2중창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여성 중창단의 ‘LOVE’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STX조선해양(주)의 강쌍원 전무와 경남예총 이종일 회장의 건배제의로 모두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2010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이 만들어 갈 경남지역의 메세나 활동이 스폰서십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정착되어 다가오는 하반기의 질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힘찬 출발이 되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었다. 🌸

조선소 도크에 올려퍼지는 예술의 향기

→ STX조선해양(주) + 창원소년소녀합창단안젤루스

STX조선해양(주)(대표이사 홍경진)는 지난 40여 년간 700여 척의 선박을 건조하며 대한민국 조선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내 대표 조선해양 기업으로서 LNG선, 초대형유조선(VLCC), 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건조에 특화된 설비 배치와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드릴쉽을 비롯한 DrillingRigs, FSU, LNG FPSO 등을 주력으로 Offshore 사업에 본격 진출하여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탑 조선해양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장학사업, 농촌 돕기, 환경보호, 스포츠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결연한 창원소년소녀합창단 안젤루스(단장 지연숙)와 함께 더욱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창원소년소녀합창단 안젤루스는 2001년 창단되어 지금까지 약 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어린이 합창단이란 면모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들도 소화해내기 쉽지 않은 뮤지컬, 국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시각적인 면과 청각적인 면을 잘 표현해 내는 합창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상남도 신년하례식에 이어 진해시청 개청식, 군항제 개막식, 경남FC축구 개막행사 공연 등 굵직한 행사들에도 참여하여 축하의 자리를 빛내주고 있으며, 안젤루스만의 독특한 음색을 통해 경남을 대표하는 소년소녀 문화사절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메세나 전도사의 마음 깊은 재즈(Jazz) 사랑

→ 경남스틸(주) + 경남재즈오케스트라

경남스틸(주)(대표이사 최충경)는 1991년 1월에 포스코 냉연판 매점(냉연코일센터)으로 창업하여 자동차 및 가전산업, 기계산업의 원소재인 냉연코일을 절단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코스닥에 상장된 지역 중견 기업이다. 지역 내에서 투명경영,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고객가치 존중, 사원 복지 확대, 메세나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에 있어 선도적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에도 힘쓰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활동을 해 오고 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출범 이후 2008년 마산관악합주단과의 결연에 이어, 2009년 동서미술상운영위원회와의 결연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번 경남재즈오케스트라와의 결연도 그 동안 다져온 인연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남재즈오케스트라는 1996년 6월 “실버사운드”로 창단하였고, 2000년 “경남재즈오케스트라”로 단명을 변경하고 정기 연주회, 지역순회공연, 문화예술행사 참여 등 창단 이후 약 140여회의 공연을 해 오고 있다. 관악, 현악을 비롯, 사회자, 가수, 기획, 연출 등 총 25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재즈음악은 물론 팝, 가요,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음악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포장처럼 단단한 전통예술 보존 의지

→ (주)산호수출포장 + 경상도소리보존회

창원 팔용동에 위치한 (주)산호수출포장(대표이사 최은수)은 1991년에 창업하여 목상자, 철상자, 팔레트 제조 및 수출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창원 팔용동의 본사를 중심으로 함안과 경북영천에 별도의 공장을 가동 중이며, 고객만족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밑바탕으로 20여 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건실한 기업경영을 영위하고 있다. 평소 지역내 각종행사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던 (주)산호수출포장은 이번 메세나 결연을 통해 경상도소리보존회의 전통예술 보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도소리보존회는 경상도 민요의 계승, 발전 및 국내외 교류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전통예술의 진흥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발전을 이루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2002년 제1회 “우리소리한마당” 국악발표회를 시작으로 매년 국악발표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음악회, 위문공연, 해외 공연 등 국내외 전통예술 교류 및 저변확대와 지역민에 대한 전통문화예술 체험기회제공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밸브를 타고 공명하는 우리 농악 한가락

→ (주)에이스브이 + 김해농악보존회

김해 주촌 소재의 (주)에이스브이(대표이사 구윤희)는 2000년 4월 창립하여 조선 및 플랜트용 밸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주력상품인 BUTTERFLY VALVE를 비롯하여 초저온 고압용 GLOBE, GATE, CAECK VALVE, AIR VALVE 및 PIPE 연결용 COUPLING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는 우량 중소기업이다. 밸브 제작 업체로서는 드물게 평소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지역 예술단체 후원을 모색해 왔던 (주)에이스브이는 이번에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하여 매칭펀드 결연을 결정함으로써 김해농악보존회와 향후 지속적인 교류 및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해농악보존회는 김해지역에 전래되어 오는 농악을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예술단체로 상동농악, 진례농악, 칠산농악, 유하농악, 활천농악 등 각 지역의 농악을 발굴하고 계승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우리 농악의 우수성을 통해 지역간 문화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고 신세대들에 대한 전통문화 전수교육, 문화탐방기회 제공,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내 양로원, 교도소, 노인병원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연을 통해 (주)에이스브이의 후원을 기반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업혁신 활동은 창의적 활동의 다른 얼굴

→ 일림나노텍주 + 마창예술인회 '솔'

1985년 금속절삭기공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일림나노텍주(회장 박효찬)는 1992년 1월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냉각시스템, CNC선반, LASER C/M, 설비자동화 시스템 등의 제반 시설을 갖추고 공작기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기계부품 및 완성품 부문에 전념하여 현재 중국 현지법인 공장 2개사를 가동 중에 있고 이를 통해 매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사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지역문화예술 지원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마창예술인회(회장 이강용)와 결연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마창예술인회 '솔'은 2009년 초 마산에 소재를 두고 창립한 전통적인 삶의 문화를 지향하는 문화예술인 단체로, 회원 각자가 미술, 음악, 문학 등 각기 다른 장르에서 최선의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행사의 개최로 문화예술의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다. 개인의 창작능력 향상과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마산지역의 문화예술 부흥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강용 작 '신령스러움'



그린에너지처럼 청명한 오케스트라의 선율

→ (주)현대단조 +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

(주)현대단조(대표이사 마평수)는 1995년 창원에서 설립된 후 2007년 함안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세계 풍력발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였고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 기계플랜트 부문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설한 중소 기업이다. 그동안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에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 오고 있으며,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결연을 통해 공식적인 메세나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경남도내의 교원과 음악(기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음악단체로, 2002년 창단 이후 현재까지 진해예술제의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전국평생학습축제음악회,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공연 등 각종 연주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는 정기연주회와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곡의 밤 또는 협주곡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지역 클래식음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병원 갤러리에 전시된 고객 사랑 정신

→ the큰병원 + 창원미술협회

창원 명서동에 위치한 the큰병원은 2009년 12월 개원한 지하 2층, 지상 8층의 연면적 8천 평방미터, 94개 병상 규모를 갖추고 최고의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장비를 보유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이다. 비수술 디지털 척추치료센터를 비롯, 다양한 특수치료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척추신경외과, 척추통증의학과, 척추영상의학과, 척추전방외과, 내과 등 5개과의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신호동 원장은 창원아시아미술제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의 보급과 발전에 애쓰고 있던 가운데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창원미술협회와 결연을 하게 되었으며, 환자와 고객들에게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병원에 '숲'을 주제로 한 미술 갤러리를 운영하여 환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창원미술협회는 1986년 5월 창립한 창원의 대표 미술단체로, 창원 향토미술 문화 발전을 위해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 국내외 미술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아시아미술제와 성산미술대전 및 각종 실기대회에 관한 사업 및 기타 회원의 권익과 복지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화, 서양화, 조각, 디자인, 서예, 공예 등에 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메세나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the큰병원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비행기 엔진음보다 더 **강렬한 사운드**를 만든다

예술동아리지원 ▶ 한국항공우주산업 _ 음악동아리 Wing

사천시 사남면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회사이다. 지난 1999년에 삼성, 대우, 현대의 항공부문을 통합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 회사로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고정익, 회전익은 물론이고 인공위성의 70%를 국산화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항공산업의 선도기업이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이곳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사내 구석진 곳에 위치한 빛바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는 비행기 엔진음을 무색케 할 정도의 강렬한 록(Rock) 비트가 터져 나와 창공을 때린다. 바로 KAI의 자랑인 록 밴드 'Wing'의 연습 현장이다. "이 컨테이너는 우리 회사가 시공될 당시 현장사무소였어요. 한국 최고의 항공기회사를 탄생시킨 이곳이 저희에겐 최고의 연습실이죠." 박상선 개발본부 비행제어팀 선임연구원이 수준급의 기타 연주를 잠시 중단하고 Wing의 멤버들을 소개했다. 기타를 맡고 있는 심재광 차장은 이날 모인 멤버 중 유일한 원년멤버다. 원년멤버답게 Wing의 멤버들이 각자 원하는 음악을 추구하되, 한 팀으로서 조화를 이루어 좋은 밴드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드럼을 맡고 있는 김덕열 연구원은 1년 전에 동료에게 이끌려

Wing에 가입했는데, 드럼은 처음이었지만 레드 제플린의 존 본햄의 광팬이었던 그는 용기를 내서 드럼 연주를 시작했다. 첫 공연에서 스틱을 세 번이나 떨어뜨리는 실수를 연발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완벽한 연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연주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직장생활에서 종종 느꼈던 갑갑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지생활을 하면서 외로움도 많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 지금은 회사 일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 집니다."라며 스틱을 들어 보였다. 보컬을 맡고 있는 박성호 과장과 여성멤버로서 드럼을 맡고 있는 서보혜 연구원도 일상에서 쌓이는 피곤함을 Wing에서 푼다며 'Wing은 박카스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2003년도에 뜻이 맞는 몇 명이 모여 결성한 Wing은 현재 서른 명 정도의 멤버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경남메세나 협의회로부터 '예술동아리 지원'을 받아 더 왕성한 활동으로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줄 수 있게 돼 Wing이 날개를 달게되었다. 10년 전 국내 최고의 항공회사를 탄생시킨 이 컨테이너에서 이제는 최고의 밴드가 탄생될 것 같다.





자연속에서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 선율

찾아가는 공연 ▶ ONE(오엔이) _ 김해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

김해시 한림동 꼭지공단을 돌아 산기슭에 위치한 ONE(오엔이)는 마치 산속에 공장을 옮겨 놓은 듯 보였다. 넓은 주차장 뒤로 짙푸른 산봉우리가 공장을 보듬듯 둘러서 있어 금방이라도 초록색으로 물들것 같았다. 그 동안 김해시 어방동에서 지정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사업을 해 온 ONE는 이곳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공장 이전식을 마련했다. 이번 이전식에는 특별히 자연을 배경으로 김해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이 마련되었다. 주차장 가운데서 이루어진 공연이 자연과 공장을 배경으로 절묘하게 어울리며 축하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뜻깊게 해주었다.

2007년부터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는 기업을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시행해오고 있다. 공연장으로 관객이 찾아오는 일반적인 공연 형태에서 벗어나 예술단체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공연이 ONE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어주었다. “이전식을 찾아 주시는 하객들에게 뭔가 답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케스트라공연이 반응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회사가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 회사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ONE의 이종호 대표는 이번 공연을 통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김해신포니에타의

이효상 지휘자는 “공장이전 축하공연은 이번에 처음인데 좋은 취지의 공연을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공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기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레파토리는 힘있고 밝은 음악 위주로 구성되어 ‘성자의 행진’이나 ‘가브리엘스 오보에’ 뿐만 아니라 ‘삼바의 여인’ 같은 익숙한 곡들이 분위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ONE의 이전식은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우수사원 표창과 축사 발표 등 기념식과 만찬으로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으며 하객들에게 독특한 분위기의 이전식으로 기억되었다.



미술작품이 있어 더욱 행복한 회사 구내식당

미술작품대어 ▶ (주)화성 _ 노혜정 작가

행복한 식탁에는 반드시 만든 이의 정성과 먹는 이의 감사의 마음이 교향곡처럼 어우러지게 된다. 공장 내 구내식당으로는 드물게 (주)화성의 구내식당은 회사를 다녀가는 사람들마다 칭찬이 자자하다. 구내식당 같지 않은 아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10년이다 되도록 한결 같은 맛과 정성으로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겨주는 이모(직원들이 구내식당 요리장을 그렇게 부른다)가 있기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벽면을 채우고 있는 노혜정 작가의 미술작품들이 화사한 색채와 독특한 구성으로 직원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경남 최대규모의 종합인쇄회사인 (주)화성은 30년 가까이 지역의 인쇄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 동안 다양한 형태의 인쇄물들을 소화해 내면서 인쇄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적지 않아 2008년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한 우수중소기업 인쇄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인쇄물 제작과 관련하여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기도 했으며 직원들이 문화를 이해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중의 하나가 식당입니다. 구내식당을 처음 만들 때부터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해주는 식사처럼 정성과 맛이 담긴 식사를 제공하고자 했지요. 경남메세나협회의 덕분에 이제 시각적 즐거움까지 더해져 식당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좋은 작품을 제공해주신 노혜정 작가에게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평소 사진에 취미가 있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 본 경험도 있는 화성의 이용일 대표이사는 자신의 작품을 구내식당에 흔쾌히 제공해준 노혜정 작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

이번에 전시된 노혜정 작가의 작품은 ‘생성’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신비로움과 자연과 인간, 신화와 종교를 어우르는 생성의 의미를 색채와 공간의 새로운 해석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고운 갤러리에 전시되었던 작품 중 4점을 화성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제 그림을 통해 정서적으로 살이 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혜정 작가의 바람처럼 공간 내 구내식당의 작은 전시를 통해 미술의 향기가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가득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경남메세나협회가 경남지역에 메세나의 새 바람을 일으킨 지 3년. 이제 경남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에게 '메세나'는 더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메세나협회를 통해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해 온 경남의 기업들은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정식을 제시해주었다. 3년의 결실을 만들어가며 21세기 기업경쟁력을 키워가는 경남의 기업과 예술단체들의 아름다운 동행의 현장으로 달려가 살아 숨쉬는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보고 그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보기로 하자.

직원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일깨우는 문화예술 공연

작업장 전체를 휘감아 도는 신명 나는 삼원테크의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작업을 잠시 멈춘 작업자들의 얼굴 위로 생기있는 웃음이 번지기 시작한다. 굵은 기둥을 받치고 솟아오른 공장동의 천정 구석까지 밀도 있게 울려 퍼지는 난리굿패 어처구니의 풍물소리가 기계음과 섞여 맥박 친다. 점점 빨라지며 앞서나가는 북의 장단이 흥을 돋우며 삼원테크(주)의 정월대보름 지신밟기가 막 시작되었다. 오늘 한 번 제대로 놀아보겠다며 장단을 풀어내기 시작한 난리굿패 어처구니의 단원들 이마에 조금씩 땀방울이 스며 나온다. 터져나갈 듯 박자를 맞춰내는 징과 팽과리, 북의 어우러짐에 머뭇거리던 작업자들의 어깨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이 작업장에서 피로감은 끼어들 겨를이 없다. 흐트러지듯 다시 모이며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박동이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신바람을 깨워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두들 하나의 장단에 연결되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체험했다.

“사업을 하면서 10여 년 전에 우연히 마산 부림시장의 풍물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정월대보름이면 동네 장정들이 팽과리를 선두로 지신밟기를 했는데, 쫓아가서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슴속에 끓는 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풍물놀이를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가슴속에 담고 있던 잡념을 쫓아내고 에너지를 채워내는 거지요. 보름에 흥을 받아서 에너지를 모으면 가을까지 농사를



짓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지신밟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삼원테크 이택우 대표이사의 눈빛이 빛났다. 처음엔 회사에서 지신밟기를 시작하니까 사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마도 무슨 종교의식쯤으로 오해를 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역시 한국 사람은 종교를 떠나서 한 핏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 해 동안 회사의 무사와 사원들의 소원성취와 고객들의 복을 비는 마음으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 흥겨워하고 에너지를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한다.

삼원테크의 지신밟기는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모든 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직원들과 어울린다. 지신밟기가 끝나면 회사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난리굿패 어처구니의 공연을 감상하고 직원들과 모두 함께 어울리는 자리도 마련한다. 현장에서 시작된 에너지의 결집은 공연을 거쳐 함께 어울리는 마당에서 최고조가 된다.

내년부터는 난리굿패 어처구니에게 회사에서 바라는 주제로 놀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직원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좀 더 제공할 계획이다. 남이 하니까 한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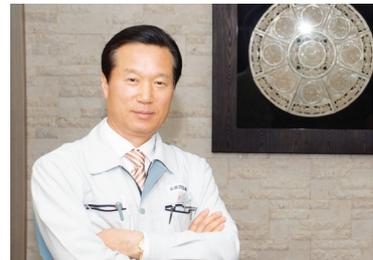
문화예술 지원으로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꿈꾸다

지난 해 11월에도 삼원테크는 ‘2009 빨바우 마을 Good’이라는 공연을 난리굿패 어처구니와 함께 창원의 집에서 개최했다. 창원시민을 비롯하여 경남 곳곳에서 약 1,500명 정도가 참여한 이 행사는 난리굿패 어처구니의 손동현 대표가 ‘창원오광대’를 복원하기 위해 4년 전부터 기획하여 시작된 전통문화체험 행사다.

“신종플루와 예산부족 등으로 축제 개최 여부를 앞두고 고민하던 차에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주관하는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저를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원테크와의 결연을 통해 이 빨바우마을 공연이 성사되었죠. 다시 한 번 이택우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리굿패 어처구니의 손동현대표에게 삼원테크는 이렇듯 특별한 존재이다. 결연과 함께 재개한 다양한 공연에서 손대표는 항상 삼원테크라는 회사 이름을 앞세운다. 현수막과 배너마다 ‘삼원테크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는다. 삼원테크가 아니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었던 공연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기 때문이다.

“미래 기업의 생존 경쟁력 확보에는 직원 모두의 창의성과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전략수립이 바탕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난리굿패 어처구니와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고유의 품물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코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택우 대표이사의 당부에 난리굿패 어처구니의 손동현 대표는 힘차게 복채를 감아 쥐며 장단을 시작한다.

“한잔 묵고 두잔 묵고 삼 석잔 거듭 묵어 일배 일배 부일배로구나~”



문화예술 공연으로 그 가치를 더해가는 사내 기념 행사

클래식 선율로 더욱 따뜻해진 정년 퇴임식

포스코특수강(주)의 퇴임식은 남다르다. 다른 회사들이 퇴임식을 년 1회로 하거나 또는 생략하는 것에 비해 분기별로 실시한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포스코특수강의 퇴임식에는 떠나는 사람의 아름다운 뒷모습과 보내는 사람의 아쉬운 마음 사이에 따뜻하고 소박한 문화예술 공연이 함께한다. 가족들과 동료들이 함께 한 그 자리에서 자칫 어색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클래식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며 서로의 가슴과 가슴을 이어 준다.

2년 전만 해도 포스코특수강의 퇴임식은 다른 회사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조금 딱딱한 분위기, 매 번 다를 것 없는 다과와 격려의 인사, 약간은 쓸쓸한 분위기로 끝을 맺는 건조한 프로그램이 그랬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 가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노래를 부른 사람은 퇴임하시는 분의 아들이었어요. 그 날 퇴임식은 정말 여느 때와는 다른 느낌이라구요. 그 때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스코특수강의 박소현 과장은 그렇게 퇴임식에 문화예술 공연을 포함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한 축하 공연은 그 다음 번 행사에서부터 바로 대단한 호응을 얻게 되었다. 150명 정도의 참석자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뜨거운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철강회사 사람들은 소주에 뽕짝이 어울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2009년 창립 12주년 기념일부터는 창립기념식에서도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직원들이 먼저 다음 행사에 어떤 예술단체가 올 것인지 궁금해하며 묻는다고 한다.

“처음엔 문화예술 단체를 컨택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정말 막막했어요. 웬만한 단체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예산 초과하기 일쑤였죠. 고민하던 중 경남메세나협의회에 문의를 드렸는데 바로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맞는 예술단체를 소개해 주시고 규모에 맞는 구성을 찾아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구요.”

올해는 ‘클래식과 함께하는 트로트’라는 프로그램도 기획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공간과 비용이 충분하진 못하지만 철강회사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적극 호응을 해주는 예술단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포스코특수강 직원들의 가슴으로부터 전해져오는 것 같았다.



지리산 팡스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에이비에이션 캠프 스승의 날 행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에이비에이션 캠프(Aviation Camp), 지리산팡스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함께 감상하는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환한 얼굴들이 더해져 식장이 더욱 밝아진다. 이공계 발전을 위해 마련된 에이비에이션 캠프 스승의 날 행사가 한창인 이곳에서 이미 회사의 초청으로 항공기 제작 현장을 견학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 보다 가까워진 느낌이다.

사전에 본사를 둔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진주, 사천지역의 중·고교 기초과학 교사를 초청하여 항공우주부문 기초과학 교사 현장 체험 연수프로그램인 에이비에이션 캠프 시범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비에이션 캠프는 항공사업에서 얻은 노하우를 국내 처음으로 교육에 접목한 것으로 기업이 보유한 산업현장의 지적자산을 교육발전에 기부하는 새로운 기부문화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학부모들과 함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팡스오케스트라의 연주 덕분에 멋진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에이비에이션팀의 김우범 차장은 경남 메세나협회를 통해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이 이날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노사협력팀 손기복 팀장의 아들 손흥구(대하중학교 2학년) 학생은 “평소에 아빠 회사에 올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공장을 견학해 보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아빠 회사에서 선생님을 초대해 주고 음악회도 열어주고 하니 자랑스러워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라며 기뻐했다.

회사의 기념행사는 자칫 구태의연한 이벤트로 그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 이런 문제를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 기획하고 합리적인 비용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그 효과를 실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많은 문화예술 공연이 기업의 기념행사를 통해 더 풍성한 예술의 향기로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역 공동체와 문화예술의 감동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기업

사랑의 멜로디로 마음의 평화와 쾌유를 제공하는 창원파티마병원

“병실에 있다가 음악소리가 들려 나와봤는데 오랜만에 직접 연주되는 곡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네요.” 병마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그 병이 주는 육체적 아픔보다도 정신적 충격이 주는 마음의 고통일 것이다. 최근 들어 호스피스 활동 등 환자들에게 정신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계의 다양한 노력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창원의 대표적 의료기관인 파티마병원도 환자와 그 환자를 돌보느라 지치기 쉬운 가족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70회째를 맞고 있는 창원파티마병원의 ‘사랑의 음악회’는 환자들에게 잠자고 있던 감수성을 깨워주고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건강한 삶에 대한 동기유발의 촉진제가 되어주고 있다. 매달 한 차례씩 병원 로비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지난 2002년 봄 조출한 공연으로 시작되어 8년이란 시간을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환자들의 무관심으로 중단의 위기를 겪기도 했고, 마땅한 연주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는 파티마병원의 노력으로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놀라운 문화체험의 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때로는 감미로운 클래식으로, 때로는 익숙한 대중가요로 매월 찾아오는 ‘사랑의 음악회’는 다양하고 풍부한 장르의 음악으로 연주자와 환자와 가족들을 한마음으로 연결해 주는 축제의 마당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관객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의 음악회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합창대회에 참가했던 대만, 중국, 나이지리아 대표팀이 ‘우정의 콘서트’라는 주제로 국적을 초월한 프린지 공연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아픈 환자들이 잠시나마 음악을 통해 평안을 찾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네 번째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창원시립교향악단 안병삼 단무장은 이 공연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겉으로 포장하려는 노력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려는 노력을 펼치는 따뜻한 메세나 활동이 우리 사회를 한층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 행복하다.



거리 벽화로 공단내에 문화 휴식처를 제공한 ㈜무학

“요즘 출퇴근 시간이 즐겁습니다. 벽화 하나가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어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곳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공단에서 만난 이시훈씨가 밝은 눈빛으로 말한다. 요즘 봉암 공단에는 화재거리가 하나 생겼다. 건조하고 딱딱하기만 했던 공단 안에 예술의 향취가 24시간 묻어나는 문화의 거리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공단 내 문화 거리를 탄생시킨 주인공은 바로 ㈜무학이다. 무학은 신관과 본관 사이 약 100미터의 거리를 벽화 거리로 조성하고 4월 7일부터 개방을 시작했다.

양쪽이 모두 공장으로 둘러 쌓여 갑갑하고 지루했던 이 거리가 마치 서울 인사동의 한 모퉁이를 연상시키듯 벽화의 거리로 변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문화 휴식처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단 한 가운데 걸린 벽화를 이상한 듯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벽화가 주는 정서적 치유의 힘에 이끌려 일부러 이 거리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평소에도 사내에 직원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무학의 최재호 회장은 사원들뿐만 아니라 공단 지역 사람들에게도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문화거리 조성의 결실을 만들어 냈다. 벽화는 경남지역 벽화 제작의 대표적 화가인 박두리 화백에게 의뢰되어 100호에서 300호에 이르는 대형 크기 벽화 약 40점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박두리 화백은 마산 MBC 외벽 벽화와 마산 대우백화점 옥탑 벽화 그리고 마산 오동동 통술거리 벽화 등 그 동안 주요 장소의 벽화를 그려 잘 알려진 우리 지역의 대표적 서양화가다. 벽화에는 ‘마산의 사계’와 ‘무학의 사계’라는 주제로 우리 고장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주조색을 바탕으로 꽃이나 나무, 숲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마산의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이곳 봉암 공단에 탄생한 문화의 거리가 앞으로 마산의 대표적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됨과 동시에 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메세나의 공간으로 대표되어 또 다른 문화의 거리를 탄생시켜가는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회사와 동색(同色)인 예술단체가 함께해 더욱 행복한 동행



문화재를 보존하는 마음으로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

“주인 주인 문여소오~ 나그네 손님이 들어가오~” 흥기종합건설㈜ 정문에서 김해민속예술보존회의 지신밟기가 막 시작되었다. 태평소의 구성진 소리와 함께 정문으로 들어오는 풍물패 20여명이 직원들을 향해 장단을 울리기 시작했다. 안에서 이미 크게 상을 차리고 손님 맛을 준비를 마친 황동열 대표이사과 직원들은 반가운 웃음으로 풍물패를 맞아들였다.

김해시 풍류동에 위치한 흥기종합건설은 우리 문화재를 유지보수 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해인사 비로전에서 부처님이 한 분이 더 발굴되었습니다. 부처상 안에 타임캡슐처럼 동전 등 여러 기록들을 넣어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9세기 말 통일신라시대의 부처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황동열 대표이사는 얼마 전 해인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기억하며 우리 문화재를 되살리는 작업에 푹 빠져 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었던 그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자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던 차에 김해민속예술보존회가 우리 전통 예술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것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바로 알고 잘 보존해야 강한 민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에 대한 그의 생각이 강하게 전해져 왔다.

“김해민속문화보존회를 보니까 많이 열악했습니다. 생계유지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에서 전통문화를 보존해가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김해지역에는 ‘가락오광대’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도 같이 찾아서 발굴 보존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동열 대표이사는 문화재청에서 근무를 해 보니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중요성도 잘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마음이 김해민속예술보존회에 그대로 전해져 다양한 지원이 작년 부터 시작되었다. “회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드렸는데 매번 사양을 하셨어요. 저희에게는 숨은 천사나 다름없죠. 이번에 창립기념일과 더불어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해드리게 되어서 저희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김해민속예술보존회의 박서현씨는 그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애뜻함을 이번에 조금이나마 털 수 있어서 기쁜 모양이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우리 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잘 이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초들을 위한 인술을 펼친 인산의 정신이 문화예술에도 이어져

5월의 삼봉산은 지상의 초록을 다 삼킬듯 푸르고 상쾌했다. 함양의 삼봉산 중턱에 위치한 인산 자연수원이 바쁜 걸음걸이로 가득했다. 인산가의 창업주이자 죽염의 발명가인 인산 김일훈 선생 ‘탄신 101주년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전국에서 약 9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축하하고 있었다. 이미 첫째 날 전야제를 치르고 나서 본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서울과 지방에서 오는 참석자들의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인산 김일훈 선생은 평생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 지식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준엄한 꾸지람을 준 반면 순박한 병자들에게는 온 정성을 다해 치료에 힘썼던 인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정성이 후세에도 사람들에게 전해져 찾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산을 기억하는 김윤세 회장이 인산의 병자구제에 대한 철학을 설명해 주었다. 인산가의 이러한 정신은 문화예술로도 이어져 문화예술의 보급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다. 지난 송년회에는 전국의 회원들을 초청하여 손양희 국악단의 공연과 함께 한 문화송년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도 빠지지 않고 손양희 국악단과 송기혁 국악단의 합동 공연이 함께 했다. 먼저 송기혁 국악단이 다양한 크기의 북들에서 묵직한 소리로 힘차게 장단을 쏟아내자 기념식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의 눈과 귀가 일시에 무대로 쏠리기 시작했다. 힘차게 맥박 치듯 전해오는 북의 울림이 예사롭지 않은 기운으로 참가자들의 심장을 고동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구성진 남도 가락으로 손양희 국악단의 민요와 가야금 병창이 향수를 자극했다. 장단과 고저를 오가는 우리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며 인산 기념식은 깊이를 더해갔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산 선생님의 열정이 국악의 울림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김경일씨는 열정적인 공연 무대를 통해 오늘 행사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으며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함께 하는 자리가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을 펼쳤던 손양희 국악단 대표 손양희씨는 개인적으로 인산가의 죽염과 뜸을 통해 공연으로 지치지 쉬운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번 써보면 그 효능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인산 죽염처럼 손양희 국악단과 인산가의 깊은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어 내는 것 같았습니
공연 무대를 통해 오
앞으로도 이런
을 펼쳤던



가훈을 통해 직원들에게 메세나 체험 제공



진해에 위치한 ㈜포스텍의 직원들에게 요즘 화제는 단연 '가훈의 재발견'이다.

누구보다 메세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이 회사에 지난 5월 진해미술협회 소속 유명 작가들에 의해 완성된 가훈이 전달되었다. 그저 평범한 붓글씨로 쓰여진 일반적인 가훈을 예상했던 직원들은 새롭게 탄생한 작품(?) 덕분에 흐뭇한 웃음이 가득하다.

사실 이번 가훈은 진해미술협회 김다순 회장이 그동안 협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포스텍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특별히 제안한 선물이었다. 김다순 회장은 포스텍과의 결연을 통해 진해미술협회가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댓가를 바라지 않는 포스텍의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해 왔다. 그러다 협회에 소속된 작가 중 최고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두 작가의 예술 작품을 한 점씩 선물해 주는 행사가 계획되었던 것이었다. 사정을 몰랐던 포스텍 직원들로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 당연했고 작품을 받았을 때 작품에서 느껴지는 작품성을 보고 먼저 놀랐고 그 작가의 프로필을 듣고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포스텍 최기석 대표이사의 가훈은 '日日學 日日省(일일학 일일성)'이다. CEO이자 수필가이기도 한 그에게 걸맞는 가훈이다. "하루 하루 학습하고 성찰하자는 의미 식사처럼 하루도 걸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작가분의 좋은 작품을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의 인사에 김다순 회장은 작가들이 기업 방법을 고민했으며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집안이 화목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좋

입니다. 학습은
을 주실 것으로는 기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답례를 했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그 어떤 작품 못지않은 감동으로 전해
지는 듯 했다.

포스텍에 입사한 지 6개월째인 장재원 주임의 가훈은 '大志遠望(대지원망)'이다. 뜻은 크게 가지고 희망은 원대하게 품는다는 의미다. 관리지원팀의 송재열 주임의 가훈은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이다. 송재열 주임은 올 1월에 결혼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실에 걸어두고 신부와 같이 볼 계획이라고 한다.

예술의 힘은 때로는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새롭게 가훈을 발견해 낸 포스텍의 직원들이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가훈을 통해 더 큰 뜻을 마음에 새기고 회사와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도심을 정화시키는 the큰병원의 '숲' 갤러리



도심의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은 산업화의 상징이자 현대화의 표상으로 여겨진다. 도로 위에 꼬리를 무는 자동차와 빼곡한 빌딩들이 점단 도시의 대명사처럼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진한 흙 냄새와 함께 밤공기를 타고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듣고 싶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최근 창원 명서동에 개원한 the큰병원의 사옥이 현대적 감각의 예술적 외관으로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남달라 보이는 이 건물에는 또 다른 독특함이 담겨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숲'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이미지는 다소 경직되고 딱딱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치료를 위해 찾은 곳이라면 그 어떤 곳 보다 깨끗해야 하며, 또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숲'을 거닐 때처럼 말입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모여 숲을 이루듯 the큰병원의 '숲'갤러리도 환자를 생각하는 더 큰 마음이 모여 이뤄졌습니다.” 각박한 도심 속에 '숲'을 주제로 한 갤러리를 마련한 신호동 원장의 설명 속에는 환자를 존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 나왔다. 창원아시아미술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 신호동 원장은 환자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줌과 동시에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병원 8층에 갤러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갤러리에는 창원미술협회 소속 작가 30명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서양화, 한국화, 공예, 서예,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예술을 통해 마음의 치료를 병행하는 the큰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 '찾아가는 예술'의 가치가 더 커져기를 기대해본다. 도심 속 '숲'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더 많이 퍼져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문화쉼터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주면 좋겠다. 🌿



경남 문화예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경남지역 **메세나** 전도사

“요즘 지역에서 문화예술단체 회장으로 취임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런 농담이 싫지만은 않다는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경남지역에서 메세나 전도사로 통한다. IMF 위기 이후 긴축재정과 먹거리 경영에 매달린 우리의 경제 현실은 기업들이 문화활동의 정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왔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경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직접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충경 회장(경남스틸(주) 대표이사)을 만났다.



“국민소득이 2천 달러였던 시대에는 밤새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었지만, 2만 달러 시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열심히 만들어낸 기능만을 추구한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 미적 아름다움을 지닌 상품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창의적인 사고와 감성경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전도사 답게 최총경 회장은 창의성과 감성경영의 중요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문화예술의 시대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세나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총경 회장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와 감성을 가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메세나활동을 통한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적극 추천한다.

“기업들의 현실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의 메세나활동을 ‘콩나물이론’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콩시루에 물을 부으면 아래로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어느새 자라있지요.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콩시루에 물을 붓듯 아무 쓸데없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기업에 돌아옵니다. 화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기업이미지와 가치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은 착한기업에서 만들어진 ‘착한상품’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기업의 성패를 갈라놓게 되고 종업원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길러줌으로써 높은 생산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최총경 회장은 25년 전부터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거의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회식이나 단체모임 후 2차로 이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연주 실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예술 활동을 시작했지만 비엔나 국립음대의 서머스쿨에도 참가하는 등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1989년 마산관악합주단 단원으로 활동할 때는 대관료, 악기구입비 등 정기연주회 공연비용을 비롯한 행사비용을 매년 500만원 이상 지원하여 지금까지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그때 마산관악합주단을 지원하게 된 것이 그의 본격적인 메세나 활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경남재즈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여기에도 악기 및 연주복, 음향기기 등 약 1억 6,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Arts & Business(기업과 예술의 만남)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후원을 펼치고 있다. 경남오페라단은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16년간에 걸쳐 매년 500만원 이상 꼬박꼬박 지원해 오고 있으며, 최근 2년에는 5,0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또한 경남오페라단의 정기공연 협찬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연에 사원가족과 거래처 임직원, 고객들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경남스틸은 이러한 공로로 2004년 5월 문화관광부, 매일경제, 한국메세나협의회로부터 지방기업으로는 최초로 한국메세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11월 문화관광부 한국 메세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창원상공회의소에도 문화예술의 새바람 일으켜

지난해에는 창원상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로운 각도로 추진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1층 로비 공간을 작은 갤러리로 조성하여 상의 내방객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상의건물에는 10개 입주업체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며, 상설검정시험장을 찾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1주일에 1,800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 방문객들이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었는데 ‘챔버갤러리’를 만들고 난 뒤부터는 작품 감상도 하고,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작은 서가를 설치하여 책도 보고, 예술작품도 감상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챔버갤러리는 현재 순수하게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최충경 회장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 실력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품 전시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갤러리를 만들고 이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상의에서는 전시 공간 제공은 물론 전시를 위해 필요한 팸플릿과 엽서 제작, 통신비등 전시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심지어 전시홍보도 해주고 있으며 상의 직원이 직접 작가의 작품을 공부하여 일 큐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구매자와 작가를 연결하여 판매를 위한 창구 역할도 해주고 있다.

지역에서 메세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활동을 해온 그에게 본격적으로 메세나활동을 한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질문을 하자 “마산시 산호동에 가면 송인식 관장님이 운영하는 동서화랑이 있습니다. 이 동서화랑은 송인식 관장이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사비를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며 송인식 관장을 존경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송인식 관장님의 친구로는 전혁림 작가, 김춘수 시인, 최운, 이상갑씨 등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과 외교구락부에서 동고동락하며 예술활동을 해 오셨고, 본인도 어렵게 생활을 하시면서도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지역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경남스틸과 동서화랑이 메세나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것도 송인식관장의 훌륭한 지역사랑과 사회 환원 활동을 존경하는 뜻으로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에 직접 참여하고 융화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메세나라는 말을 접해 보지도 못하던 시절에, 악기를 연주하는게 좋아서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악과 친해지다 보니 그 분야의 실정도 알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지역예술가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것들이 메세나활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원챔버갤러리를 방문하시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예술작품도 감상하시고 지역화기도 도움 겸 한 작품씩 구입하시면 좋은 재테크가 될 것입니다.” 지역 메세나활동의 원조격인 그는 지금도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과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 경남지역의 메세나 활동은 서울지역 못지않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역의 보배로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의 작품을 보고 듣고 카타르시스를 느꼈지만 앞으로는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시대가 올 것이며, 그런 상품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배우고, 연극에도 참여하고, 그림도 수집하는 등 문화예술에 직접 참여하고 융화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주요한 메세나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메세나활동을 멀게만 느낀다면 급변하는 트렌드에 융합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의 메세나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국내 메세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문화예술 활동이 낙후지역까지 골고루 퍼져 모두가 혜택을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그의 마음이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최충경 회장의 메세나 활동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제2, 제3의 인물들이 그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해본다. 🍃



- 2008 . 11 한국 메세나인상 수상(문화관광부)
- 2004 . 5 한국메세나 “우수기업” 수상(문화관광부, 매일경제)
- 2002 . 2 (사)합포문화동인회 부회장(현)
- 2000 . 12 마산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
- 2000 . 3 (사)경남오페라단 운영이사(현)
- 1997 . 8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썸머스쿨 수료(DIPLOM 취득)
- 1989 . 10 마산관악합주단 단원(엘토색소폰)



예향의 멋과 낭만을 찾아가는

통영예술기행



지난 5월 2일 경남메세나협의회는 회원사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10 문화예술기행'을 실시하였다. '문화예술기행'은 예술과 여행이 결합된 '예술 테마 여행'으로, 이번 행사에는 회원사 직원 및 가족 40여명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통영의 웃칠미술관, 윤이상기념관, 동피랑 등 대표적 문화예술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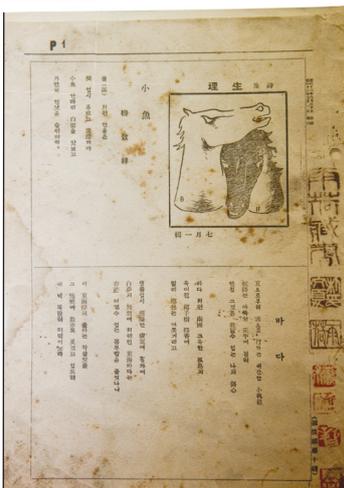
통영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내려다 보이는 통영의 실루엣은 볼 때마다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향수'의 시인 정지용이 자신의 문필로는 그 자연미를 표현할 수 없다고 했던 통영이 수줍게 기둥 뒤에서 반쯤 내다보는 섬 처녀 같이 우리를 맞았다. 나를 봐 달라고 드러내놓고 뽐내는 것이 없이 반쯤 숨어있어도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순수미. 하루 동안이지만 그 통영이 우리에게 보여 줄 문화예술의 향기가 무척이나 기대감을 자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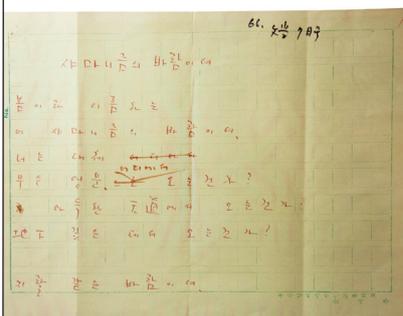
400년 전통의 통영 나전칠기와 옷칠미술

43명의 도시 사람을 태우고 수줍은 통영을 찾은 버스는 제일 먼저 옷칠 미술관에서 노독을 풀었다. 조선시대 한양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장인들이 12공방을 형성했던 통영에서도 그 명성이 가장 자자했던 나전칠기가 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우리를 맞았다. 옷칠미술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두 개의 문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봉황새를 표현한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김성수 관장이 최근에 완성한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옷칠 미술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들어서게 된다. 옷칠 미술은 작품의 완성도 못지 않게 옷칠 자체의 성질이 신비로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로부터 잘 만들어진 옷칠작품은 천년의 세월을 그 빛과 성질을 유지한다고 전해진다. 못으로 일부러 긁지 않는 이상 흠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유리 액자도 필요 없고 1965년에 만든 자개장이 그 색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기만 했다. “어릴 때는 집집마다 자개장 하나씩은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우리 전통의 일이 서러있고 많은 손을 거친 작품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옷칠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농협중앙회 박상환 차장과 가족들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말한다. “옷칠을 처음 접해보요. 우리의 좋은 문화인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더 발전하고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경원벤틱의 김성희 사원은 옷칠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운 모양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라

청마문학관으로 이동해서 기념관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유치환 시인의 대표작 ‘행복’이 우리를 맞는다.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장면을 연상시키며 그의 친필 시들이 노오란 모조지 위에서 멀기만 했던 그와의 거리를 한껏 좁혀준다. 김춘수, 윤이상 등과 나는 서한들도 눈에 띈다. 언제 찍었는지 모를 그들과의 흑백 사진이 예술적으로 풍요로웠던 통영의 정신적 토양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한다. 뒷면에 복원된 그의 생가에서는 금방이라도 그가 걸어 나와 삭막해진 오늘의 비인간성에 대해 한 편의 시를 들려줄 것만 같다. “한 번 와 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메세나를 통해 기회를 갖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유치환 시인의 친필과 유품들을 보니까 교과서 안의 인물이 우리 옆에서 함께 호흡했던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환산업의 전계홍 과장이 딸 우지와 함께 유치환 시인을 만나고 있었다. “청마의 생가를 새롭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가를 보니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의 시를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광건설의 한만범 이사도 그를 시속에서 다시 만날 것 같다.



철거의 위기에서 전국적 문화 명소로 새롭게 태어난 동피랑

동쪽 언덕이란 뜻의 동피랑. 통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살던 곳이기도 했던 그곳은 한 때 철거의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푸른통영21'이라는 시민단체가 벽화전을 열기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타고 통영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히며 전혀 새로운 동네가 되어 버렸다. 인터넷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선정된 작가들이 집집마다 벽에 특색있는 벽화를 그려냈다. "동피랑은 처음이지만 마스크에서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벽화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벽화를 그린 사람은 이곳에 사시는 분과의 교감을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이 여기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STX조선해양의 조창희 대리의 말처럼 이곳의 예술은 삶에 연결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생활에 침해를 받는다며 반대를 했지만 어둠던 마을이 밝아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활기가 넘치자 나중엔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해 주는 곳이다.



통영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향토역사전시관

통영의 신선한 해산물과 정다운 담소로 점심 시간을 채우고 향토역사전시관으로 향했다. 통영이라는 이름은 '삼도수군통제의 본영'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경상, 전라, 충청의 3도 수군을 지휘하던 본부였던 통제영의 역사가 이곳 향토역사전시관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통영하면 멀치 잡는 마을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직접 보니 조선시대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화영의 손성민 과장의 말처럼 12공방과 세병관을 통해 당시 통영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느껴진다. 소설 '객주'에 보면 통영소반에 안주 차려오는 것으로 자기 부를 과시하는 장면이 나온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명품'이 이곳 통영의 공방에서 나왔던 것이다. 통영은 이렇게 조선시대 최고 브랜드였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통영의 역사적 깊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로 복원하는 유물들을 통해 통영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려철강 하문주 차장의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한국인이면서 독일 국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비운의 음악가 윤이상

“나의 음악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음악을 내 예민한 귀를 통해 내 놓을 뿐입니다. 동양의 음악가들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술이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백림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국제적 구명 운동을 통해 독일로 이민하여 독일 국적으로 생을 마감한 한국인 윤이상이 전한 음악에 대한 설명이다. 그의 유품 중에는 여러 번 곱게 접혀 지갑에 간직된 조그마한 태극기가 있었다. 독일에 거주하던 시절에는 고향 통영의 1910년 전경 사진을 항상 벽에 걸어 두고 생활했던 윤이상. 1972년 독일 정부로부터 뮌헨 올림픽 기념 작품을 의뢰 받았을 때 그는 한국의 심청전을 오페라로 만들어 공연했다. 그는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동양적 사상을 서양에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대음악의 거장으로서 세계적인 음악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적인 거장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통영을 연고로 두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국적을 갖게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북이 분단된 이유로 세계적인 음악가가 힘든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고려철강의 김영환 과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박영근 차장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

색채의 마술사, 한국의 피카소 전혁림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전혁림 미술관이다. 전혁림 화백은 추상과 구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한국의 피카소로 통한다. 통영 앞바다 색깔은 파란색을 많이 사용하여 코발트 블루화가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는 초기에는 추상과 구상의 중간 정도 화풍을 보이며 우리 민화에 나오는 소재들을 다루었고, 중기에는 추상적 풍경과 함께 도자기와 목재 등에 접목하여 한국의 전통 색채인 오방색을 사용하며 작가적 철학을 완성해 갔으며, 최근에는 절의 단청이나 옛 장신구 등에서 보이는 고유의 민족 정서를 재해석하여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1952년 피난시절에는 친구였던 이중섭 등과 함께 부산에서 4인전을 열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전혁림 화가를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병아리처럼 보이는 새 그림이 동심을 자극하고 기분을 밝게 해주는 것 같아 좋습니다.” 라며 청호산업의 김봉남씨가 함께 온 아들 대경이와 감상평을 전했다.

저녁식사로 나온 통영의 별미 굴요리에 지친 미각을 일깨우며,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너무나 새롭게 느껴진 통영이 우리들의 가슴속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경리, 김춘수, 유치환, 윤이상 등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기라성 같은 예술인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고 예술적 성장의 토양이 되어 준 통영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 하루이기도 했다. 한산도에서 여수까지 크고 작은 물길이 아름다워 한려수도라고 부르는 곳. 충무공 이순신이 백척간두의 운명에 처했던 조선을 구해 낸 전투의 현장이기도 했던 곳. 미륵산의 산세가 남해로 흘러 들어 15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만들어 낸 아름다운 풍광의 고장 통영이 이제는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와 통영국제음악제 등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통영과 작별하며 돌아오는 길에서 어느덧 문화예술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다. 🍃





가정의 달 5월에 사·랑·을·전·하·는 찾아가는 메세나

“나이 든 우리들에게 좋은 공연 보여주어 고맙네”

구암1동 노인정의 이봉희 할머니는 며칠 전 구경했던 공연이 너무 재미있어 동네에 자랑하러 다니느라 바쁘시다. 참으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관람한 풍물패의 공연이 어찌나 흥겹고 재미있었던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동네 친구들을 꼭 데리고 가고 싶으신 것 같다. 가면을 쓰고 관람석으로 뛰어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했던 배우들이 제일 기억에 남으신다. 좀 더 용기를 내서 함께 춤도 추어보는건데 하는 아쉬움도 느껴지신다.

지난 5월 7일과 8일에 마산과 창원에서는 난리굿패 어처구니가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 한 지역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메세나 행사가 열렸다.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난리굿패 어처구니(대표 손동현)가 ‘흥이 있는 문화동행 얼씨구!!! 조오타!!’라는 제목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제공한 것이다. 마산에서는 구암동에 위치한 경남사회복지관에서 인근 구암동을 비롯해 대방동 노인정의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전통놀이판을 제공하였고, 5월 8일 창원에서는 성산면 연당리 마을회관에서 같은 내용의 공연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였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난리굿패 어처구니의 공연은 통영오광대 놀이를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게 각색한 흥겨운 가면마당극 놀이로 총 5개의 마당으로 이루어져 위로와 즐거움의 자리가 되었다. “주요 무형 문화재인 통영오광대를 어르신들에게 맞게 각색하여 건강한 기운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갈라 공연 개념으로 각각의 마당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뽑아내어 각색했습니다. 첫 번째 마당은 나쁜 양반이 영로라는 용이 되려는 이무기에게 잡혀먹는다는 내용입니다. 영로가 아흔 아홉명의 양반을 잡아먹고 마지막으로 한 양반을 잡았는데 그 양반이 자기는 양반이 아니라며 모면하려고 한다는 양반 풍자극입니다.” 난리굿패 어처구니의 손동현 대표는 흥겨운 장단과 구성진 사설이 어르신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젊었을 때 자주 봤던 기억이 나네. 풍물패들이 아주 성의 있게 잘 해주어서 아주 재미있었어. 할미가 영감 만나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 굿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요새는 이런 구경을 자주 못하는데 덕분에 좋은 구경했네.” 대방동 노인정에서 오신 김영기 할머니는 조금 흥분된 모습으로 친구들과 공연 얘기를 하며 즐거워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회를 놓쳤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어 다행으로 느껴졌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자주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의 옥미주 과장은 “흥겨운 우리가락으로 구성되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으며 공연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문화체험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공연 부탁드립니다.”라며 난리굿패 어처구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반과 할미의 과장된 몸짓과 익살스런 대사가 풍자와 해학으로 전해져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과 웃음을 유발하는 이번 공연은 앞으로 산청복음전문요양원, 김해노인종합복지관, 창원상이군경회관에서 계속 열릴 예정이다. 🐦

경남의 21세기 경쟁력, 예술에서 찾아야 합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을 빼앗고 말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처럼 인터뷰 시간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저지른 이기적 행동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먼저 미안해하며 예총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인한 인상이 풍겨왔다. 그것이 요즘 흔치 않은 콧수염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콧수염은 70년대 최고의 영화배우였던 찰스 브론슨의 우수에 찬 눈빛을 연상시켰다. 경남예총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자 절제된 언어와 명료한 음성으로 막힘 없는 설명을 쏟아냈다.

“경남예총은 경남의 모든 문화예술 단체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세부적으로 각 장르 별 10개 도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 지부가 16개 있구요. 모두 2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르는 아시다시피 문학, 음악, 영화, 건축 등 한국예총의 장르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예총은 각 단위 장르들이 모여서 경남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사업을 만들어 내고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경상남도의 예술인을 대표하고 문화예술 정책을 상대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경남예총은 83년에 발족되어 30년 가까이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오고 있다. 이종일 회장은 2007년도에 취임한 경남예총의 8대 회장이다. “예술이 항상 완전함에 못 미치는 점이 있듯이 예총도 예산과 관련한 한계로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안타깝게도 경남에는 종합예술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경남예술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회장을 맡고 나서 탄생한 ‘경남예술제’는 전시, 공연 등을 활성화시키고 예술인들의 마음이 하나되게 함으로써 경남예술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학의 상대적 빈곤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예술의 기초는 문학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경남은 문학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문학에 대한 지원이 덩달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알고 문학작품과 작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문학상을 재정하여 과격적 상금을 통해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끌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전 장르를 아우르는 예총의 수장답게 그는 문화 콘텐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의 상대적 부족함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경남에 뿌리내리고 그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발전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다.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씩 나누어 주는 식의 지원이 아니라 예술과 작가를 키우기 위해 작품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하고 전시, 공연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문화예술지원조례를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는 문화예술 지원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나눠주기 식으로 되어서는 예술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한다. 현장을 속속들이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어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인 창의력을 강화시키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 경제논리에 의해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듯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가며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창국제연극제를 기획해낸 살아있는 예술정신

이종일 회장의 전공은 연극 연출이다. 1983년 7월에 극단을 창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차에 1989년 거창국제연극제를 만들어내었다. “연극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과 호흡하며 각기 다른 성격을 재창조해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관객에게 감동을 주어 마음이 진선미로 변화될 때 연극의 무한한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느낍니다. 거창은 양민학살 사건이 있었던 이데올로기의 말초적 비극의 현상이었던 곳입니다. 이런 거창에 문화사업을 접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비뇽을 벤치마킹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남의 5개 극단으로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연극 볼 시간 있으면 막걸리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게 낫겠다며 미친놈이라고 하기도 했죠.” 지금은 국내외 50개 극단이 20일간 연극의 향연을 펼치는 국제적 연극제가 된 거창국제연극제의 시작은 그렇게 미미했다. 그는 프랑스의 아비뇽이 세입의 70%를 축제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6월도 그에게는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다. 경남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매년 진행해온 해외세미나와 향토순회전 준비도 해야 하고, 작품선정은 이미 끝났지만 축제 마케팅과 진행 준비가 남아있는 거창국제연극제도 신경써야 한다. “메세나가 정말 우리 예술계에 메시아처럼 다가 왔습니다. 너무 잘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업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여 미래 예술가 양성에도 힘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지원 기준은 좀더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알고 만들어 내면 좋겠고 문학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고민하는 그의 살아있는 눈빛을 보며 21세기 경남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

챔버갤러리를
사랑하는
초보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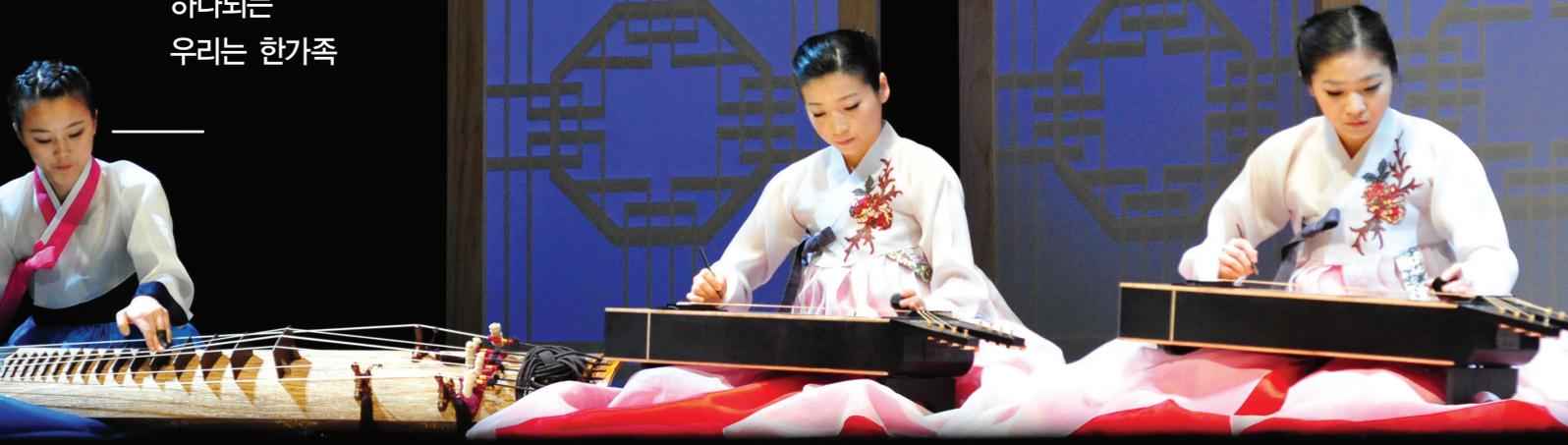
창원상공회의소 챔버갤러리를 소개해 줄 큐레이터와의 만남은 갤러리 안에 마련된 예쁜 탁자에서 이루어졌다. 밝은 인상의 이은진씨는 인상만큼이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갤러리에 걸린 수채화를 따라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을 배경으로 챔버갤러리를 소개받았다.

“상공회의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동안 기다릴만한 장소가 마땅히 없었어요. 누군가 휴식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으로 갤러리를 만들자는 의견을 냈고, 우리지역 화가들 작품도 많이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모두들 공감을 한거죠.” 이렇게 탄생한 챔버갤러리는 그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있다. 올해 3월에 권용호 화백의 전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째 전시를 하고 있는데, 매번 큐레이터가 다를 뿐 아니라 모두 창원상공회의소의 직원들이 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은진씨는 두번째 전시인 조계현 화백의 전시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

“미술에 대해 너무 몰랐어요. 전시를 맡자마자 화백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사무실에서는 부국장님이 귀찮아 하실 정도로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화백님을 찾아가 직접 그림을 보고 말씀도 들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궁금한 것이 생기면 밤늦게라도 전화해서 여쭙보기도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조금씩 전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은 그림에 대한 눈이 트인 것 같아요.” 이은진씨는 특허 출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지식컨설턴트다. 업무가 인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라 이번 준비 덕분에 감성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한다. 요즘은 민원인들의 관심이 부쩍 많아져 행복하다. 사무실에 올라와 그림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오픈식할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를 할 때마다 동료들이 즐거워(?)하며 격려를 해주었어요. 지금은 다음 번 전시가 기다려져요. 다음엔 좀 더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수줍은 미소 가운데 자신감이 엿보였다. 다음 전시를 맡을 동료에게 충고해 줄 말도 많다. 일상의 업무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갖게 해 준 회사에 고마운 마음이 든다. 조계현 화백과 친해진 것도 기쁜 일이다. 얼마 전에는 그림을 그려보라는 제안도 받았다고 조심스럽게 자랑을 했다. 챔버갤러리의 초보 큐레이터 이은진씨는 동료들도 이 일을 계기로 문화적으로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가야금 병창으로
하나되는
우리는 한가족



경원벤틱의 회사 기념식에는 매년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함께 한다. 사원번호 없는 사원 공재민씨의 축하공연이 그것이다. 공재민씨는 사원번호가 없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그를 사번 '0번'으로 생각한다. 매년 행사마다 자신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 송년회자리에서 판소리 춘향전 중 사랑가 대목을 열창하며 인기를 모았던 모습을 아직도 모두들 생생하게 기억한다. 서울에서 함께 내려왔던 '동국타악 청(聽)과 판을 벌였던 사물놀이는 신들린 듯한 장단으로 모두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며 송년회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사실 사번 '0번' 공재민씨는 경원벤틱 공경열 대표이사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국악을 좋아하던 꼬마 사원이었던 그는 지금은 서울에서 가야금병창을 전수받고 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아버지 회사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해로 달려와 직원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 가락을 전하고 있다. 올 초에는 공경열 대표이사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연례적인 시무식을 아예 생략하고 우리 가락으로 직원들과 하나되는 자리를 만들어 냈다. 직원들에게 더 멋진 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 욕심에 국악을 사랑하는 지인들을 쫓아 다니며 취지를 설명했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주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가야금병창 전수자인 권귀진, 신재희씨가 함께하겠다고 해주었고,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한 민정민씨, 남도민요보존회 사무국장 정향수씨, 한국국악협회 대구 사무국장 성정모씨 그리고 송년회에서 함께 호흡했던 사물놀이팀 '동국타악 청(聽)까지 뜻을 같이 해주었다. 행사장에 필요한 준비는 직원들이 함께 도와주어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장식들로 셋팅이 되었다.

목청을 가다듬기 위한 단가 '청석령'에서부터 출발한 공연은 남도 풍의 심청가와 흥보가로 접어 들면서 점차 청명하고 밝은 가락으로 직원들의 마음속에 전해졌고 철현금 산조와 거문고 신곡 등과 함께 흥겨움이 더해지며 사물놀이를 가서는 절로 어깨춤을 끌어내는 신명나는 자리가 되었다.

벌써 다음 공연을 생각해보는 공재민씨에게는 국악과 아버지회사의 직원들이 있어 무엇보다 행복하다. 사번 '0번'의 국악 사랑은 앞으로도 경원벤틱의 직원들과 함께 계속 이어질 것 같다. 🌸

경남메세나 사업소개

1.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결연 사업

-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티켓구매, 사내 여유허용, 직원 자원봉사 등을 지원
 -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및 직원예술교육, 공연초대,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
- **2010년 50개팀 결연목표**
 - 2008년 29팀 결연, 2009년 45개팀 결연, 2010년 상반기 31개팀 결연 확정

경상남도와의 함께하는 중소기업과 예술의 만남

2010 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 중소기업의 예술단체 지원금에 경상남도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
- 기업의 예술지원 참여확대로 공공예산의 2배 효과
- 2010년 경남도 지원금 총액 : 4억원
2010년 상반기 중 267백만원 지원 확정

2. 회원사협력사업(회원사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찾아가는 공연**
 - 기업내 각종 행사시 예술단체가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공연을 제공
 - 2010년 : 경남자동차판매(주) 고객감사신년회, 포스코특수강(주) 창립기념식&토임식,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스승의 날 기념식, ONE 공장확장이전식
-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 사내 예술동아리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예술강사,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
 - 2010년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음악밴드 'Wing', STX조선해양(주) 통기타동아리 '통소리', 경남은행 합창단
- **미술작품 대여사업**
 - 도내 작가들의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기업체에 대여전시
 - 현재 포스텍(주)과 원광종합건설(주), (주)화성 에서 실시 중
- **예술기행 사업**
 - 회원사 직원 및 가족에게 도내 문화예술체험 제공
 - 2010년 5월 상반기 예술기행(통영) 실시, 11개사 43명 참여/하반기 하동 실시 예정
- **문화공감**
 - 회원사 대표 및 담당 임원에게 우수공연 관람기회를 제공
- **지정기탁 사업**
 - 결연지원금 이외 회원기업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금(행사협찬, 후원 등)을 협의회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3. 문화나눔사업

- **찾아가는 메세나**
 - 사회복지시설이나 농어촌지역 학교 등 문화소외계층 방문 공연
 - 2010년 상반기 도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민속가면극 '창원오광대' 공연 실시
-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양육 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연 관람 기회 제공



4. 연구 및 홍보사업

- **경남메세나 발간**
 - 2008년 5월 창간하여, 2010년 6월 7호 발간
 - 도내기업, 회원사, 예술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협의회 홍보 및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활동 소개
- **문화경영 세미나 및 기획위원회 운영**
- **문화경영 도서 보급**
 - 문화경영 관련 도서를 연 1~2회 회원기업에 배부
- **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샵**
 - 예술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경영 워크샵
- **조사연구 사업**
 - 메세나 전문 인력 교육 : 상반기 서울아트스쿨 주최 문화마케팅 과정 참가



5. 경남메세나대회

- **2010 경남메세나대회 개최(12월 초)**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
 - 메세나 갤러리(메세나 활동사진 전시), 경남메세나상 시상, 축하공연, 예술동아리 발표회 등
- **'2010 경남메세나상' 시행**
 - 메세나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헌신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



6. 신규회원 모집

-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대상 기업 : 도내 대기업/중소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
- 2010년 신규회원사
 - (주)리베라호텔, (주)현대기업, (주)고려철강, (주)현대단조, (주)산호수출포장, (주)한국자연환경, the큰병원, 에이스브이(주), (주)고구려 총 9개사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사원 연수를 미술관에서”

- ● ●
- 건축도자를 통해 인간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원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업 회원이 되면 도자만들기 단체 체험을 통해 직원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미술관에서 워크샵을 진행함으로써 상상력을 깨우는 실무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내 용
 - 일반회원 : 전시관 무료입장, 도자체험 할인, 아트샵 할인, 문화이벤트 및 작가와의 만남 초대 등
 - 기업회원 : 일반회원혜택 + 전시 오프닝 초대, 단체도자체험, 기업 세미나 공간 제공 등
- 신청방법 : 미술관 현장, 전화, 홈페이지(<http://www.clayarch.org>), 팩스(340-7077) 접수
- 문의 : (055)340-7013 이메일 khj00@clayarch.org

<경남도립미술관> “팝아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미술관놀이”

- ● ●
- 경남도립미술관은 국내최대규모의 팝아트 전시 '신나는 미술관 : Wow~! Funny Pop'전을 8월 15일까지 미술관 전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적 팝아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아울러 현대미술이 대중에게 친숙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 전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 장 소 : 경남도립미술관 전관
- 일 시 : 2010년 6월 3일(목) - 8월 15일(일)
- 내 용 : '키치적표현-엽기발랄' 등 소주제별 구성, 29명의 작가 참여
- 문 의 : (055)211-0321 이메일 ssleart@korea.kr



<고성오광대보존회> “탈춤캠프에서 전통놀이마당 체험하기”

- ● ●
- 고성오광대는 민중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전통놀이마당으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탈춤이다. 고성오광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고성오광대보존회는 공연뿐만 아니라 전수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탈춤캠프'를 열 예정이다.
- 전수 장소 :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 전수 기간 : 2010. 6. 28 - 8. 28 9주간(17에 4팀, 9기까지 모집)
- 접수 : 홈페이지 www.ogwangdae.or.kr / 메일 hju2582@naver.com
- 문의 : (055)674-2582



<가곡전수관> “차와 음악이 함께하는 2010 금요풍류”

- ● ●
-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예능보유자 조순자 선생이 이끄는 가곡전수관에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전통음악공연인 '금요풍류'를 열고있다. 가곡, 가사, 시조뿐만 아니라 기악곡, 창작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공연 후 관객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과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있는 이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의 멋과 풍류를 즐기는 여유로운 금요일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공연장소 : 마산시 회원2동 631-6번지 가곡전수관
- 공연시간 : 2010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7. 23-8. 20 공연 없음)
- 티켓가격 : 무료
- 문의 : (055)221-0108 www.igagok.org

<거창국제연극제> “자연·인간·연극이 하나 되는 세계적인 야외연극축제”

- ● ●
- 제22회 거창국제연극제가 '자연, 인간, 연극'을 주제로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7일 동안 거창군 수송대 일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의 우수한 연극, 무용, 음악 등의 예술 공연이 거창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그 외에도 체험행사나 학술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관객들에게 풍성한 예술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 장 소 : 거창군 수송대 일원의 야외극장 및 거창읍일대, 숲 공연장
- 일 시 : 2010년 7월 30일(금) - 8월 15일(일)
- 슬 로 건 : 10000개의 별, 100개의 연
- 문 의 : (055)943-4152~3 홈페이지 <http://www.kift.or.kr>

Hi, Arts High Five!

기업을 위한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경남 미술작품 대여 사업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한국미술협회 경남도지회는
 도내 작가들의 수준높은 미술작품을 기업체에 대여전시함으로써
 기업에게는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지역 미술인에게는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경남의 미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업내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기업의 예술동아리 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직원들의 예술활동 참여기회 증대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기업내 각종 행사시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위해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클래식, 팝음악, 전통예술, 연극 등
 아름답고 재미있는 문화공연을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참가신청서 1부 제출
 (경남메세나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회원기업에 한해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회원기업 협력사업 전체 지원금 한도 연간 100만원)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 7호를 읽은 소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1. 이번 호를 읽고 난 후 느낌이나 소감을 적어주세요.
2.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칼럼 3개를 적어주세요.
3. 다음 호에 추천하고 싶은 칼럼의 주제를 적어주세요.
4. 연락처(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접수기간 : 2010년 7월 15일 까지

보내실 곳 : ①홈페이지 (www.gnmecenat.or.kr)
 <정보가 있는 공간> → <메세나지> → <소감문 남기기> 코너
 ②E-MAIL (gnmecenat@gnmecenat.or.kr)

지난 호 당첨자

- 김상욱
 STX조선해양(주) 근무
- 허지혜
 김금희무용단 단원
- 이영
 진주시 평거동
- 최윤정
 경남은행 근무
- 이선경
 김금희무용단 안무장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행***
아름다운 동행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

메세나의 어원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Caius Cilinius Maecenas)의 인명에서 유래

1967년 미국의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칭



COVER STORY

'장미' -황진- (목태캔버스에 옷칠_자개, 통영옷칠미술관 소장)

통영옷칠미술관(관장 김성수)은 400년 전통의 통영나전칠기의 계승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경남자동차판매(주)와 결연을 맺은 후 더욱 활발하게 독특한 화법의 옷칠회화 창작활동에 매진하며 한국칠예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